

비브라토, 비브라토

이기호

작가

1.

그의 아내가 낙원상가까지 직접 나가 중고 첼로 한 대를 사 온 것은 삼 주 전, 토요일의 일이었다. 첼로라니! 그는 검은 가죽가방에 얌전히 들어 있는 첼로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내는 그런 그의 옆에 앉아, 검은 가죽가방 뒤에 들어 있던 활을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 이리저리 비춰 보았다. 허공에 대고 몇 번 휘둘러보기도 했다. 마치 이제 막 솟돌에 간 장검을 살펴보는 무사처럼 아내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거야 원, 무서워서 농담이라도 제대로 하겠나.

그가 지나가는 말로 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두 달 전쯤의 일이었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일이 끝나면 가끔 아내가 밤 열 시부터 철야로 주방일을 보는 김밥천국에 들러 함께 퇴근을 하곤 했다. 아내가 퇴근 직전 하는 일은 그날 치 주문 김밥을 은박지에 도르르 말아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었다. 가끔 주문량이 많은 날엔 그도 팔을 걷어붙이고 박스 나르는 일을 돕곤 했다. 그러다 보면 그의 몸에도 아내의 그것과 같은 시큼한 단무지 냄새가 배곤 했는데, 그 냄새가 종종 그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밥천국에서부터 그들 부부가 사는 다세대 반지하방이 있는 동네까지는 버스로 네 정거장 거리였다. 주위가 희뽀하게 밝아올 무렵, 그들 부부는 그 거리를 항상 손을 맞잡은 채 걸어갔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사거리를 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마주보고 있는 운동장 담벼락을 걷다 보면 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곳은 불과 이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 부부의 주소지였던, 28평형짜

리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남들 다한다는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거듭하다가 일 년 반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그러나 여전히 대출 이자는 내야만 하는 아파트가 있는 곳……. 그래서 그는 될 수 있으면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 일부러 중학교 뒤쪽으로 난 길로 빙 돌아가려 했으나, 번번이 아내가 막아섰다.

“왜 멀쩡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 헛심 뺄 일 뭐 있다고.”

아내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반 발짝 정도 앞서 걸어 나갔다. 그는, 아내가 자신 앞에서 더 씩씩한 척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때론 그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씩씩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씩씩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위안으로 삼기도 했다.

첼로만 해도 그랬다. 그가 지나가는 청소차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인지 쇼팽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나타 악장을 허밍으로 따라 하다가 ‘예전엔 정말 나이 들면 꼭 첼로를 배우고 싶었는데……’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을 그의 아내가 놓치지 않고 들었던 것이다.

“첼로? 그걸 배우고 싶었던 말이야?”

그의 아내는 마치 진기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서 말했다.

“뭐, 그냥…… 아이들 생기면 개네들 앞에서 연주해 주고 싶었거든…….”

“그래? 그럼 그러면 되겠네, 뭐.”

그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그렇게 말했다. 그는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내 주제에 무슨……’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그 뒤론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다. 한 데, 느닷없이 아내가 첼로를 사 온 것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려면 미리 배워둬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배울 곳도 다 알아 뒀다고 했다.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첼로를 어떻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학원은 못 보내주고,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저쪽 초등학교 근처에 교회 하나 있지? 거기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 서로 가르쳐주고 연주도 한다나 봐. 내가 짬싸게 당신 이름으로 등록도 다 해놨어.”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자기가 씩씩하다 못해, 남편까지 씩씩하게 만들 작정이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방바닥 정중앙에 누워 있는 첼로가 마치 육중한 철근 덩어리라도 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만 했다.

“아니, 난 악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가 괜스레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서둘러 아귀를 지으며 자리

에서 일어났다.

“저거 내가 두 달 동안 세 시간 더 일찍 나가서 김밥 만 돈으로 산 거야. 알아서 해.”

그는, 아내가 부엌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 정물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첼로라 나……, 허, 거참.

2.

엉뚱하게도 첼로가 그의 일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나머지공부’ 직후의 일이었다.

아내의 강권 아닌 강권에 밀려 몇 번 교회 지하실에 딸린 동호회 모임에 나가긴 나갔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좀처럼 첼로에 집중하지 못했다. 동호회 사람들은 하나 같이 친절했고, 전담 회원을 지정해 활 잡는 법부터 현 굿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연신 손목시계를 보며 안절부절못했다. 동호회 모임 시간은 저녁 6시30분. 한 시간가량 레슨을 받고 다시 방에 들러 첼로를 둔 다음, 강남역까지 가려면 언제나 시간이 빠듯했다. 남들보다 좋은 ‘쿨’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그곳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반복해서 계속 수평 굿는 자세를 연습하면서도 딴 생각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활은 자주 사선을 그리거나 선에서 어긋났다.

동호회 모임에 다섯 번째 나갔던 날이던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놓아주지 않고 ‘오늘은 최소한 비브라토가 뭔지는 알고 가야 한다’라며 붙잡는 바람에 8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레슨이 끝난 적이 있었다. 그는 첼로 가방을 어깨에 멘 채 헬레벌떡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다가 무의식중에 대리기사 전용 앱을 켜고, 놓치기 아까운 ‘쿨’ 하나를 잡게 되었다. 그가 살고 있는 장위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초저녁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쿨’이었다. 조금 켜 걸음으로 가면 5분 안에 손님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는 첼로였다. 첼로를 어깨에 멘 채 ‘대리’를 뚫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불안하게까지 여겨진 것이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면서도 힐끔힐끔, 어깨에 멘 첼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까짓것, 딱 한 번인데 뭐. 강남 쪽에 가면 단골로 가는 편의점에 맡겨놨다가 새벽에 다시 찾으려면 되겠지. 그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좀 더 걸음에 속도를 냈다. 등에선 벌써부터 끈적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계속 운이 좋았다. 장위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강남역에서부터 평창동까

지, 다시 구기동에서 목동까지…… 마치 손님들 한 명 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쿨’이 뒀고, 다른 경쟁자들에 앞서 속속 ‘쿨’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모두 어깨에 첼로를 멘 채로……. 첼로 때문에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게 웬걸, 그는 첼로 덕분에 세 명의 손님으로부터 따로 ‘팁’을 받기까지 했다. 손님들은 그가 갖고 온 첼로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긴커녕 희한한 듯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왔다. ‘혹시 어디 소속된 첼리스트 아니냐?’ ‘첼로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거냐?’ ‘아무리 어려워도 첼로를 팔아선 안 된다’ 등등. 손님들은 그가 답변하기도 전에 지레 짐작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조수석에 기대 놓은 첼로 스크롤 부분을 쓰다듬다가 다시 룸미러 속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그는 손님들의 질문에 때때로 난처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취한 상태였고, 그의 대답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자기 말만 한 뒤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단박에 ‘밤에는 대리 기사를 뛰는 첼리스트’가 되고 말았다. 그는 어색했지만, 굳이 그들의 생각을 정정하려 들진 않았다. 어쨌든 지금 첼로를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는 그다음 동호회 모임 때부터 일부러 첼로를 어깨에 멘 채, 강남역 앞으로 나갔다. 손님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첼로를 메고 뛰어온 그에게, 그래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에게 많은 것을 물었고, 더 많은 ‘팁’을 주었다.

3.

첼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가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속칭 ‘진상’ 손님으로 통하는, 반말을 ‘씩씩 내갈기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십 대 중반의 남자 차를 몰았을 때 일어났다. 종로에서부터 반포까지 가는 손님이었는데, 노선에서부터 속도까지, 뒷좌석에 앉아 계속 욕설 섞인 말투로, 취기 섞인 목소리로 신경질을 냈다. 그는 최대한 말대답을 하지 않고 오롯이 핸들만 부여잡은 채, 정속 주행을 했다.

문제는 손님이 말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서 막 차를 정차했을 때 일어났다. 그때까지 뒷좌석에 기대앉아 있던 손님은, 그제야 조수석에 세워져 있던 첼로를 발견하곤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어,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둔 거야?” 그는 자동차 키를 손님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걸 제 첼론데요.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손님은 그가 건네는 자동차 키를 받지 않았다. “첼로? 무슨 소리아? 당신은 대리기사잖아? 당신이 왜 첼로를 갖고 다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갖고 나온 건데요…….”

손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사람 이거, 대리 핑계로 남의 물건 슬쩍 하려는 거 아니야? 잠깐 있어 봐, 우리 기사한테 전화 좀 해 보고.” “아니, 이건 분명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첼리스트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그는 당황했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었다. 손님은 기사와 통화가 되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첼리스트라고? 그래? 그럼 한 번 연주해 봐. 그럼 내 믿지.” “여, 여기서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님은 몸을 숙여 운전석 아랫부분에 있던 버튼을 조절했다. 그러자 운전석이 뒤로 밀리면서 공간이 넓어졌다. “날 믿게 해 보라구.”

손님은 뒷좌석에 다시 허리를 파묻고 앉아 두 눈을 감았다. 그는 난감했다. 손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손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첼로를 들고 내린다면, ‘대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도둑으로 몰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운지법조차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첼로를, 그것도 자동차 안에서 연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는 다시 손님을 향해 말했다.

“저기, 손님……. 이건 진짜 제 첼로가 맞거든요. 저기 빨리 자동차 키 받으시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님이 말을 이었다.

“거,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성질나면 첼로고 뭐고 다 부숴버리는 수가 있다.”

그 밤, 그는 첼로를 배운 이후, 처음으로 낯선 타인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반복했다. 그게 그가 유일한 배운 연주곡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활은 자주 떨어지고, 그래서 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현을 그었다. 어쩐지 지금 자신의 모습 모두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만 같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형편없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렇게 십 분쯤 흘렀을까? 뒷좌석 손님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됐다. 연습 좀 많이 해라. 그게 뭐냐?”

손님은 그의 허벅지 위로 만 원짜리 지폐 두 장을 놓고 먼저 차 밖으로 나갔다. 카드 결제를 한 손님이었으니까, 그건 분명 ‘팁’이었다.

그는 첼로를 어깨에 멘 채 아파트 단지를 터덜터덜 걸어 나오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두 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오늘은 꽤 허탕이나 보네.”

아내는 말꼬리를 높이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그는 울컥해서 하마터면 소리 내어 울 뻔했다. 그는 심호흡을 길게 한 후, 간신히 짧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많이 바빠?”

아내는 갑자기 도로공사 하는 아저씨들이 밀려들어 와 정신없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자기 무슨 일 있어? 응? 나, 지금 많이 바쁜데.”

“아니, 무슨 일은…… 그냥…… 나 이제 첼로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의 말에 아내는 잠깐 침묵했다. 그러자 전화기 안에선 반찬 좀 빨리 갖다 달라는, 남자들의 성마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이 사람이 이거 겸손하질 못하고. 오늘 내가 들어볼 거야, 알았지?”

아내는 언제나 그보다 더 씩씩했다. 그 씩씩함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깨에 멘 첼로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다.

<끝>